

# 전주시, 정원산업 플랫폼 도시 도약

###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 12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덕진공원에서 개최

146개 정원 관련 업체의 생산품과 전문 정원작가·시민작가들의 혼이 담긴 아름다운 정원을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정원산업박람회가 전주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월드컵광장에 마련된 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작가, 초록정원사, 참여업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전주시 홍보대사인 차오름의 개막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행사는 개막선언과 기념사, 환영사, 축사에 이어 코리아가든쇼 선정작가 등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또, 참석자들은 개막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에 이어 월드컵광장에 마련된 산업전을 함께 관람하고, 덕진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정원전시를 둘러봤다.

이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5일간 전주월드컵광장과 덕진공원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박람회는 ‘한바탕 전주 정원마당(시민이 만드는 하나의 정원)’을 주제로 정원산업 육성과 시민참여를 아우르는 정원산업 플랫폼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는 자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월드컵광장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덕진공원까지 공간을



전주시는 지난 8일 전주월드컵광장에 마련된 박람회장 메인무대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원작가, 초록정원사, 참여업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의 개막식을 가졌다.

을 확대해 정원전시와 산업전, 시민참여정원이 어우러지는 도심형 정원축으로 운영된다. 시는 월드컵광장 10만㎡와 덕진공원 7만㎡를 연계해 산업과 문화, 일상이 하나 되는 전주형 정원 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박람회를 통해 정원산업 전시·교류 기능을 강화하고, 전주가 대한민국 정원산업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원 관련 질 높은 전문업체를 선별하여 산업박람회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올해 박람회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람회라는 점이다. 전주시 전역에 시민참여정원을 조성하고, 설계·조성·유지관리 전 과정에 시민과 지역 정원 인력이 함께 참여하도록 해 정원문화를 일상 속으로 확산한다.

공간 구성의 경우에도 월드컵광장은 정원산업전과 비즈니스 교류 중심 공간으로, 덕진공원은 정원전시 중심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두 공간의 기능을 분리하면서도 연계성을 높여, 박람회 전체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다.

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정원산업전에는 총 14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식물 소재와 정원용품, 조정 자재, 설비 기술 등 다양한 정원산업 트렌드를 선보인다. 또, 월드컵광장 내 전주국제드론스포츠센터에는 비즈니스라운지가 운영되며 생산 농가와 바이어 간 1:1 상담도 지원한다. 이곳에서는 우수품종 전시와 산업투어, 최신 정책과 기술, 시장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협회 초청 컨퍼런스 등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박람회 기간 전주시 전역에는 총 35개의 시민참여정원이 조성된다. 시민정원작가, 초록정원사,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정원을 직접 만들고 가꾸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정원해설, 정원토코소, 정원향기체험, 정원가꾸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덕진공원에는 국립정원문화원과 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 작가정원 5개소가 조성됐으며, 서울시 우호정원 1개소와 기업동행정원 4개소도 함께 조성됐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정원이 도시의 경쟁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면서 “산업과 문화, 시민의 일상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전주형 정원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장애인 가구에 드림하우스 선물

###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우정회 집수리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센터장 오은주)와 우정회 집수리봉사단(단장 김용안)은 10일 완산구 동서학동의 한 장애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과 마을 노인들을 위한 국수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전주지역의 자영업자 모임 봉사단체인 ‘우정회 집수리봉사단’은 주말을 반납한 채 주거복지사각시대 이웃을 위한 16번째 ‘드림하우스’를 완공했다.

특히 봉사활동에는 우정회 회원과 가족, 주거복지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노후화된 주택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장애인 남매 가구를 위해 △욕상 방수 △단열창호 설치 △싱크대 교체 △도배와 장판 시공 등 집 안팎을 꼼꼼히 살펴 피며 쾌적한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서 알게 된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이자 등록 장애인 가구로, 지난해 모친상 이후 여동생이 장애가 있는 오빠를 돌보며 거주하고 있는 중년 남매 가구다.

봉사단은 이 날매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주거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 협력의 열매였다. 집수리 및 나눔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우정회 회원들의 회비 △동서학동 주민센터의 사례관리비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후원금에 더해 사정을 딱하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이 더해져 그 의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봉사단 부녀회에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마을 노인들을 초청해 따뜻한 국수와 간식을 대접하며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도 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농기센터, 전시형 스마트팜 운영

전주시가 전시형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미래형 농업 기술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2026 전주 이팝나무 축제’에 이어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펼쳐지는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기간에도 전시형 스마트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이팝나무 축제기간 스마트 재배시설이 마련된 컨테이너 스마트팜 전시 공간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녀가 스마트농업 기술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시민 참여형 체험이 진행된 현장에는 하루 평균 700여 명, 연인원 3000여 명이 모종심기 체험에 참여해 흙을 만지고 식물을 심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우리쌀 소비촉진 행사의 일환으로 뽕튀기 시식 코너와 우리쌀 누룽지 판매 부스도 함께 운영해 시민들이 지역 농산물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스마트팜 운영에는 스마트팜과 원예시스템 등을 전공하는 한 국농수산대학교와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보건소, 장애인·보호자 안전한 약물 사용 교육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8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 사용과 관리 방법’을 주제로 한 통합건강강좌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대한약사회 소속의 약품안전교육 전문강사가 초빙돼 △올바른 약 복용법(식전·식후 복용 준수 등) △약물 유통기한 확인 및 보관

법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약물 △가정 내 폐의약품 처리 방법 등 실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약을 삼기기 어렵거나, 여러 종류의 약을 혼동해 복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복약 상담도 함께 이뤄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권희성 기자

## 전주 발전 이끌 2027년도 국비 확보 ‘정조준’

### 시, 국가예산 부처단계 활동결과 보고회 열고 방문 결과·전략 논의

전주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승부처인 부처예산안 편성 시기를 맞아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부시장실에서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국가예산 부처단계 활동결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부처 방문 결과와 향후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가 이달 말



전주시는 지난 8일 부시장실에서 운동목 부시장 주재로 ‘국가예산 부처단계 활동결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부처 방문 결과와 향후 국비 확보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까지 계획예산처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부처 단계에 전주시 핵심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 논의한 주요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전주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 기반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주시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될 사업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예술도시이자 책의 도시, 조선왕조실록이 유일하게 보존된 전주사고와 함께 대한민국 기록문화의 중심인 전주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문화예술분야)을 설립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 기조에 맞춰 남부권에 문화예술 분관을 설치, 균등한 문화향유 기회 보

장 및 문화산업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건립’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및 타당성 조사 결과와 폐기물 예상 발생량 증가에 따라 완산구 정여립로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신규 건립하는 사업으로, 전주 광역권(전주, 완주, 김제, 임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주권 청소행정의 핵심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여기에 ‘전주 AI 가상융합 미래기술 실증혁신 기반 조성’ 사업은 AI 및 가상융합 산업 육성과 확장을 통해 혁신적 제조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신산업 가치창출을 위한 실질적·체계적 지원체계를 갖춘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거점을 조성, 전주가 일류 디지털 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손꼽히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시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사업과 전주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전략 사업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이어가며 각 사업에 맞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